

# 반도체/디스플레이

## 정책 관련 수급 불균형 심화 요인 발생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02. 6098-6688  
sunwoo.kim@meritz.co.kr

RA 주민우  
02. 6098-6677  
minwoo.ju@meritz.co.kr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중국 증설 자제 요구**

전자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중국 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각 업체별로는 삼성전자는 시안에서의 낸드플래시 fab 2기 건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RAM 클린룸 확장,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의 OLED 양산 fab 건설 등 중국 관련 증장기 증설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정부는 첨단기술 유출로 인한 경쟁력 상실 우려에 기반해 국내 투자 가속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임.

**반도체: 중단기 공급 차질 유발 요인 · 공급 부족 심화 가능성 대두**

현재 발생하고 있는 DRAM의 공급 부족 상황은 수급의 두 요인 중 수요 보다 는 제한된 공급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DRAM의 수요 전망에 관해 업체들이 보수적인 공급 전략을 추진하는데 기인함. 당사는 SK하이닉스와 Micron 등 경쟁사의 과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DRAM 증설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긍정적인 업황 전개를 예측해왔음. 금번 정부의 중국 증설 자제 요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단기 수급 불균형을 심화하고 평가 상승 가속화를 유도할 수 있다 판단됨. 1) 지속되는 미세 공정화로 인해 클린룸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시fab에 기반한 SK하이닉스의 DRAM 공급 증가는 국내 클린룸만을 활용 시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당사는 Micron 역시 9/26으로 예정된 FY4Q17 실적발표회에서 보수적 공급 증가 계획을 건지하리라 예상함. 2) 현재의 높은 DRAM 평가 수준에도 여전히 공급 업체들의 주문 충족률은 80%여 남짓으로 파악됨. 현 상황에서 고객에게 추가 평가 상승 불가피함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판단임.

한편 낸드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의 평택 P1 2층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해당 클린룸이 내년부터 활용 가능한 상황에서 시안 투자가 지연될 경우에도 국내 투자로 적시성 확보에는 당분간 무리 없다는 판단임. 하지만 시안 2기 투자 지연으로 인한 일부 세금 및 토지 혜택에 있어 일부 반환 요구 등에 직면하는 부정적 상황 연출 역시 간과 못함. 장비/소재 업종은 국내 업체들의 연속적인 반도체 투자뿐 아니라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에도 일부 불확실성이 발생한 만큼 단기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임.

### 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중장기 전략 차질 발생

LG디스플레이의 경우 중국 광저우시 정부와 합작 법인을 세우고 8세대 OLED 공장 건립을 공식화한 상황임. 국내 파주 P10에 10세대 OLED 공장이 들어서는 만큼 8세대의 해외 진출에는 큰 무리가 없었으나 정부 승인에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됨. 당사는 TV 패널의 경우 성숙기마저 지난 LCD 대신 OLED로의 투자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과거 LCD 패널 산업 내 중국업체들의 가파른 경쟁력 확보가 전반적이며 지속적인 과잉공급을 초래했다는 경험이 있었지만, 향후 TV OLED 산업은 그와 다르게 전개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는 OLED의 아날로그 특성 (전류구동)을 감안한다면 한발 뒤쳐진 중국업체들의 경쟁력확보에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9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9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9월 1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선우, 주민우)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